여 "국민만 보고 투표를" 야 "정권심판 열차 출발"

총선 공식 선거운동 돌입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2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진행된 지원 유세에서 "사전투표, 본투표 가리지 말고 무조건 투표장에 가 달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사전투표, 투표 제도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선거부터 우리가 바꿨다. 모두 수개표를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반드시 걱정하지 않게 챙길 거다"라며 "투표장에 가셔서 오로지 '국민'만 보고 찍어달라"고 호소했다.

선관위가 이번 총선에서 개표 과정에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한 것을 언급하며, 부정 선거에 대한 의구심으로 사전투표에 소극적이었던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오도록 독려한 것이다. '국민'만 찍어달라는 것은 지역구 및 정당 투표에서 '국민의힘'과 비례대표용 정당인 '국민의미래'를 찍어달라는 의미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독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홍석준 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이 언론과의 질의응답에서 "지지자 중 아직도 사전투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 사전투표 독려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당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용산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열어 '정권심판론' 확산에 열을 올렸다.

이재명 대표는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선대위 출정식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열차가 국민 승리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지금 출발한다"며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석열 정권에 이제 주권자가,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심판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발생한 '용산 참사'를 언급하며 "우리가 기억하는 참사의 원인은 분명하지 않고, 원인을 밝히려는 노력도 저지당하고 있다"며 "용산 대통령실에 의해 국민주권이 부정당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출정식을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년간 이들의 집권 기간에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하게 파탄됐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로 (용산에 출마한) 강태웅 후보의 당선인데 지금 아슬아슬하다"며 강 후보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인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 용산 바닥에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진실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해병대 장병 희생의 진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호주대사로 임명해 내보내는 이런 정권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국민들에게 호소한다. 이제는 과감하게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이 정부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느냐"며 정권심판 여론을 자극했다.

이날 오전 7시 본인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출근길 인사로 '첫 유세'를 시작한 이 대표는 출정식 후 중·성동갑을 시작으로 동작을, 동작갑을 차례로 돌며 서울 격전지인 한강벨트 공략에 집중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선거운동 시작일을 전후해 본격적인 민주당 지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당색(黨色)인 파란 점퍼를 입고 고향인 거제를 찾아 변광용 후보를 만난 데 이어 29일에는 과거 본인 지역구였던 부산 사상에도 들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여야 비례 위성정당, 나란히 광주 방문

국민의미래, 5·18 묘지 참배…더불어민주연합, 시의회서 기자회견

여야 비례 위성정당이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잇따라 광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비례대표 후보들과 함께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민주화운동 왜곡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일정에는 김건·김민전 공동선대본부장, 김화진·안상훈·이달희·최수진·한지아 선거대책부위원장, 김소희·이소희·정혜림·김미현 대변인, 조배숙·김예지 비례대표 후보 등이 함께했다.

인 위원장은 "(5·18) 북한군 개입설이 사실이라면 제가 5·18에 (통역으로) 참여했을 때 미국계인 저는 죽었을 것"이라며 "그 자체가 북한 개입설이 거짓임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국회에 입성하지 않아 언급하는 것이 시기상조지만 5·18 정신과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들도 이날 광주를 찾았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번에 배정된 전남 출신 서미화 후보와 임미애 전 경북도당위원장, 조원희 전 경북도당 농어민위원장, 서재헌 전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등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은 소선거구제가 실시된 이후 단 한 번도 민주당 정치인이 당선된 적이 없다"며 광주·전남 지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해나 기자 khn@

4·10 총선 누가 뛰나

(민=더불어민주당, 국=국민의힘, 녹=녹색정의당, 진=진보당, 소=소나무당, 농=한국농어민당, 무=무소속…사진은 기호순)

'전남 정치 1번지' 6명 도전장…경쟁률 전국 최고

목포

현역 민주 김원이 "의대 유치" 정의당 박명기, 득표율 관심

김원이(민)

윤선웅(국)

박명기(녹)

최국진(진)

최대집(소)

이윤석(무)

목포는 '전남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선거구다. 민주당을 태동시킨 김대중 전 대통령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지역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뚜렷한 지역이다. 민주당 후보들 간 경선 전쟁이 치열했던 만큼 본선은 박진감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6대 1)을 기록할 정도로 후보가 몰렸다.

현역인 민주당 김원이 후보에 국민의힘 윤선웅, 녹색정의당 박명기, 진보당 최국진, 소나무당 최대집, 무소속 이윤석 후보 등이 도전장을 냈다. 그럼에도 19대 때 민주통합당(71.17%)에 몰표를 줬고 20대 총선에서는 녹색바람인 국민의당(56.38%)과 민주당(20.26%)에 지지를 보여준 반면, 새누리당(6.54%)에게는 눈길 주는 데 인색한 지역 정서가 확연해 '믿으랑께 민주당'이라는 말이 나온다. 다만, 현역인 김 후보가 지난 4년 간 보여준 정권에 대한 투쟁력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점은 득표율에 반영될 것으로 정치권은 분석하고 있다.

김 후보측도 이같은 점을 감안, 28일 출정식과 함께 본격적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경력을 바탕으로 지역 최대 현안인 전남 의대 설립에 앞장서겠다며 지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선웅 목포시새마을문고 이사가 28일 '동료시민과 함께하는 선거운동 챌린지'를 첫시작으로 지역민 마음 잡기에 공을 쏟고 있다. 윤 후보는 '전남을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녹색정의당 박명기 후보는 '목포를 목포답게, 정치를 정치답게'라는 슬로건으로 선명성 있는 진보정당을 내세우며 지역민들과 만나고 있다. 지난 21대 때 정의당(11.88%)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던 목포 유권자들의 민심 변화는 관전 포인트다.

진보당에서는 최국진 목포시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민주당 일색의 지역 정치 변화를 내세우며 선거운동에 본격 뛰어들었고 최대집 전 대한의협(40대) 회장은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과 의료 전국 목포를 내걸고 소나무당 후보로 나섰다.

이윤석 전 의원은 지역구를 목포로 옮겨 사무실을 내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 후보는 목포·무안·신안 통합의 적극적 역할론을 할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현역 서삼석 지지세 굳건…무안국제공항 해법 '관심'

영암무안신안

민주 서삼석 "마지막 총선" 지지호소 국힘 황두남 '여당 후보' 부각

서삼석(민)

황두남(국)

윤부식(진)

김팔봉(농)

백재욱(무)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는 광주·전남 핵심 현안인 무안국제공항에 대한 해법을 놓고 후보들이 어떻게 풀어나가는 지 행보와 발언을 눈여겨 챙겨볼 만하다. 당장, 내년이면 전국 최초로 KTX가 공항으로 연결되는데도, 여태껏 민간공항조차 이전하지 않아 공항 활성화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내 다른 공항들이 잇따라 건립을 준비하거나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대만·동남아로 이어지는 최단거리 항로에 존재하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 적극적인 공항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어느 때보다 차별화된 정치력을 기대하고 있는 지역 유권자들이 많다는 정치권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른 지역과 달리, 청년인구(18~45세·2만9638명)가 장년인구(46~64세·2만 5979명), 노인인구(65세 이상·1만 9053명)보다 많은 무안의 경우 젊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을 공약 발굴에도 관심을 쏟는 분위기다.

이 지역은 민주당 후보로 나선 현역인 서삼석 후보와 국민의힘 황두남, 진보당 윤부식, 한국농어민당 김팔봉, 무소속 백재욱 후보 등이 지역민 바람을 이룰 수 있는 후보라며 저마다 뛰어든 형국이다. 사실상 지역 정치권에서는 본선의 경우 '싱거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판세 분석이 흘러나온다.

지난 2018년 재보궐선거(민주당 서삼석·65.48%), 2020년인 21대(민주당 서삼석·76.96%) 에서 나타난 현역인 서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굳건하고 재선 도의원과 민선 3·4·5기 무안군수를 지내며 다져놓은 바닥 민심도 탄탄한데다, 전통적인 민주당에 대한 정서까지 업고 경선 승리 뒤 '다음 총선 불출마' 까지 공식 선언했으니 서 후보로 표심이 향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서 후보도 마지막 총선임을 시사한 듯 '정권심판, 지역발전'이라는 문구와 함께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황두남 후보는 큰 정치 대신, 민생과 연결되는 생활정치를 펼칠 여당 후보임을 내세우고 있다. 윤부식 후보는 "바뀌지 않고 있는 지역에 변화를 줘야할 시기"라며 '새로운 세력, 새로운 인물론'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유권자들과 접촉하고 있다. 선거기간 유권자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는 골목 유세에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 서기관을 지낸 김팔봉 후보는 현 한국농어민당 부대표로 출사표를 던졌다.

백재욱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신안 출신으로 민주당 후보자 자격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자 탈당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중앙신용

못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2024 고소득 추천 묘목

포포나무		제릭스 빅걸	선플라워×샘노리스 품종의 교배를 통해 선발된 최고 크기의 포포, 최대 과중 800g
		리만스 딜라이트	프로리픽×샘노리스 품종의 교배를 통해 육종된 품종, 달콤한 향에 뛰어난 품질을 자랑
		마리아스 조이	최대과중 631~704g, 년중 수확량 우수 유명 과수 학자가 지칭한 최고 맛있는 포포
사과		신품종부사 후지사과	잎따기와 반사필림을 깔지 않아도 동서남북 색상이 잘나고 저장성이 우수하며 신맛은 적고 최고의 맛을 자랑합니다
감		감풍, 원추	신품종, 추위에 강하고 수퍼 단감
		태추단감	배 맛이 나는 단감 중에 최고!
		슈퍼대봉	대봉중에 맛이 뛰어나 식재를 많이 합니다.
엄나무		민엄나무 가시없는 엄나무	가시 없는 민엄나무 가시 있는 것보다 수확이 2배가 나오고, 효능이 같습니다.
두릅		민두릅 참두릅	가시없는 민두릅, 참두릅, 정강두릅은 봄부터 가을까지 수확

사과,신품종 호두, 신품종 유실수 등 품종이 다양합니다.
※2024년 인기 품종으로 조기 품절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무는 "갑을농원"과 상담하세요!
묘목 식재 및 재배 관리까지 무료교육, 무료상담 해 드립니다.

휴경지 노는 땅 상담해 드립니다.

갑을농원 묘목상담 010-3121-7676 문의전화 053-856-1144
경북 경산시 하양읍 화성로 25
농협 703-02-497271(예금주 정준화)

펜션 급매매

전남 신안군 증도면
엘도라도 리조트 가기 전

- 대지 1,795㎡
- 건축 282㎡
- 연면적 438㎡
- 수영장 有
- 총 2개동 (객실습11개, 히노끼 욕조 6개)
- 1개 소매점
- 주차 15대 可
- 현재 주차장과 정원부지로 사용중인 밭(전) 1,320㎡ (무상양도)

매매가 9억 8천

010-3666-6301